

【 해외금융뉴스: 중국 】

중국생명, 적십자와 제휴한 보험 판매 계획

- 중국 최대의 생명보험회사인 중국생명(中國人壽)은 베이징 1,000개 주거 단지에 중국적십자와 공동으로 설립할 예정인 서비스센터를 향후 새로운 판매채널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함.
 - 중국생명이 최근 공개한 운용계획에 따르면, 2011년까지 약 2,500여 개의 베이징 주거단지 중에서 선별한 1,000여개 지역에 중국적십자와 공동으로 ‘적십자 박애 서비스센터’를 공동 운영할 계획임.
 - 서비스센터의 보험대리인(보험설계사)은 처음부터 보험판매를 하지 않고 주민들과 친분을 쌓은 후 자발적으로 보험문의를 해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판촉 행위를 할 예정임.
 - 중국생명은 이번 사업을 위해 보험대리인 중 지원자를 모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보험서비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과 같은 기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.
- 중국생명은 이번 중국적십자와의 제휴를 통해 보험서비스가 주민들 생활공간으로 거부감 없이 파고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 - 이전에 이미 신화생명(新華人壽), 중잉생명(中英人壽) 등 주요 생명보험회사들의 주거단지 진출 시도가 있었지만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모두 성공하지 못했음.
 - 중국생명은 과거 보험판매센터와 같은 직접적이고 단순한 홍보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, 보험강매 행위를 지양하고 지역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형성에 역점을 두는 전략을 선택함.
 - 이러한 기본 전략을 바탕으로 중국생명은 작년 6월부터 약 1년 여 동안 베이징 시내 14개 주거단지에 소규모 박애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,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자 이를 본격적인 사업모델로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하게 됨.

(중국생명 홈페이지, 신량재정 6/10)